

월/요/광/장

김필식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대문호 톨스토이가 남긴 말이다. 맞는 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더 갖기 위해 집착하고,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닥친다면? 감히 장담하건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는 최근,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 담론에 대해 성찰하게 된 두 개의 사건을 대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대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이 그것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죽음은 예기치 않은 순간으로 다가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죽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기도 하고, 죽음으로써 생애를 완성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그런 경우인 것 같다.

정의로운 삶과 명예를 소중히 지키며 살아왔던 고인은 명예가 불가항력적으로 마구

훼손되던 시기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국민들은 몇 시간씩이고 기다렸다 조문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왜 울었는가. 그토록 길었던

왜소화된 시기에 죽음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켜냈다. 그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국민들은 몇 시간씩이고 기다렸다 조문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다. 우리는 왜 울었는가. 그토록 길었던

관받으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으로 살아났다.“ 삶과 죽음이 자연의 한 조각”이라던 그의 유언에는 생의 끈을 초연히 놓아버린 자의 쓸쓸함이 묻어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지 불사하며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느껴진다. 생의 가치를 지켜준 죽음에 국민들은 깊이 애도하고, 감동했으며, 믿음을 걸고서 꽃을 바쳤다.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 거부하며 태부수했던 우리 사회의 가치관도 이제 서서히 변화의 물

는 상황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미리 밝혀놓아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저 옛날 로마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시내를 행진하던 개선장군 뒤에 노에 한 명을 세워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외치게 했다 한다. “겸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속뜻이 있는데, 승리감에 취해 쿠데타를 모의했던 개선장군들이 더러 죽임을 당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

근래 들어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제대로 된 삶을 살라는 의미로 쓰인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한 몸이 아니던가. 죽음에 대처하는 개인의 아름다운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정리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일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면 된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우울한 화두가 아니다. 천상병 시인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할’ 수 있게, 즐겁게 죽음을 기억하자.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즐겁게 죽음을 기억하자

던 조문행렬,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 이유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제각기 그럴듯한 답을 내놓았지만 어떠한 답도 심금을 울리지 못했다. 그의 죽음이 곧 그의 생애인 것을, 눈물의 원인을 어찌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겠나.

고인의 말대로 그것은 어쩌면 그의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사즉생 생사(死即生 生即死)’라 했던가. 죽어야 사는 남자. 그는 일생을 두고, 자신의 이익을 버린 채 ‘죽어야만 사는 운명’에 기꺼이 투신해 왔다. 스스로 바보의 길을 걸었다. ‘바보 노무현’은 국민들에게 가장 반만하게 비

결 앞에 선 듯하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공호흡기 등에 의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풀이 있게 자연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허용한 것이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환자의 생명권보다 상위(上位)에 놓여졌다.

물론 존엄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사전 의사표시와 종교관 등을 고려해 진정으로 치료 중단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때 국한하고 있지만, 환자 개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된다는 주목하게 된다. 만약에 일어날지도 모르

《동신대학교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도청 별관 ‘10인 대책위’ 성공하려면

1년 이상 끌어온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전면에 나섰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시의회의장,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7명과 최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등 10인이 옛 도청 별관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업이 특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현 정부 내 일부 인사들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 또한 여론 양분으로 인한 지역민 간 갈등 심화, 지역 내 문제를 자체 해결할 역량

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타지역의 부정적 시각 등 실패 시 불어닥칠 후폭풍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인 대책위의 성공을 위해선 몇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한다. 철거를 주장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대책위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책위 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논란의 직접 당사자인 추진단과 5월 단체가 판을 깔 경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대책위에 대표권을 위임해야 한다.

대책위 활동이 공평·투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엄중한 역사적의식을 갖고 무엇이 시민의 뜻이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 10인의 책임은 막중하다. 대책위의 해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지역사회는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콘텐츠 진흥원 나주이전 마땅하다

광주와 전남도가 지난 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에 이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전략적·기능적으로 연계 발전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폐합 대상인 5개 기관의 조속한 이전업무 추진도 함께 요청했다.

양 시도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나주이전을 건의한 것은 무엇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등 5개 콘텐츠 관련기관을 통합한 기관이다. 즉, 문화콘텐츠의 연구에서부터 개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핵심동력인 셈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근간

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아시아의 문화발전소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연계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양 시도가 정부의 결단을 건의한 것도 이 같은 시너지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양 시도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광주 이전은 애초 참여정부가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에 공식화했던 사업으로 정부가 미적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명분에서나 실리에서도 나주이전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타 지역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 기관만 나주로 옮기려는 꼼수도 중단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5개 기관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혁신도시 이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차질을 빚을 요량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최협

서울에서 청계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삼일교 남단 한화빌딩 앞의 자그마한 광장에서 뜻밖의 구조물, 즉 베를린 장벽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통일을 이룬 독일의 베를린시가 아직까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에 분단과 통일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의 원형 3개를 2005년에 기증한 것이다.

처음 접한 사람에게만 매우 특이한 설치 미술처럼 보이는 베를린장벽은 그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보는 이의 마음을 숙연하게 한다.

또한 베를린장벽 옆에는 베를린을 상징하는 동물인 곰의 조각상이 함께 있어 ‘베를린 광장’은 청소년들을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베를린에 있어야 할 독일의 역사·문화적 유산이 지구의 반대편까지 옮겨져 와 우리에게 냉전의 이끈 기억과 통일의 기쁨, 그리고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교류의 가치를 생각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교과서

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화교류를 하고 있음을 느낀다.

베를린장벽은 20세기 냉전시대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사적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따라서 독일 통일 후 장벽의 철거문제를 놓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장벽의 완전한 보존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독일인들이 내린 최종 결정은 독일의 역사·문화적 자산인 장벽을 베를린이라는 공간에 고정시켜 가두어두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40여km에 이르는 베를린장벽을 대부분 철거하였고, Muehlen Strasse 쪽에 남아있는 1.3km 정도의 장벽에는 여러 화

가들이 그림을 그려 넣도록 하여 일종의 전시장이 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가꾸었다.

그리고 철거된 부분과 잔해들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기증되거나, 국제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세계 평화와 화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염원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 각국에서 전시되어 그 상징적 의미를 전파하도록 했다. 어느 예술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해체되기 이전의 베를린 장벽은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해체되어버린 베를린 장벽은 이제 통합과 자유의 상징

이 되었다.”

우리 광주에서는 옛 전남도청별관의 철거문제를 놓고 원론적인 자기주장만이 되풀이됨으로써 일년이 다 가도록 대립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베를린장벽의 사례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구도청에는 5·18사적이 8개가 있고, 그중 7개는 완벽하게 보존되고 오직 별관 하나만이 철거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별관의 문제를 베를린장벽의 모델을

베를린장벽과 도청별관

를 놓고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다.

장벽의 완전한 보존을 주장하는 의견도 많았지만 독일인들이 내린 최종 결정은 독일의 역사·문화적 자산인 장벽을 베를린이라는 공간에 고정시켜 가두어두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역동적인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40여km에 이르는 베를린장벽을 대부분 철거하였고, Muehlen Strasse 쪽에 남아있는 1.3km 정도의 장벽에는 여러 화

가들이 그림을 그려 넣도록 하여 일종의 전시장이 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가꾸었다.

그리고 철거된 부분과 잔해들은 평화와 화합의 상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기증되거나, 국제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세계 평화와 화해, 그리고 자유에 대한 염원을 담은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세계 각국에서 전시되어 그 상징적 의미를 전파하도록 했다. 어느 예술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해체되기 이전의 베를린 장벽은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해체되어버린 베를린 장벽은 이제 통합과 자유의 상징

이 되었다.”

우리 광주에서는 옛 전남도청별관의 철거문제를 놓고 원론적인 자기주장만이 되풀이됨으로써 일년이 다 가도록 대립과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베를린장벽의 사례는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구도청에는 5·18사적이 8개가 있고, 그중 7개는 완벽하게 보존되고 오직 별관 하나만이 철거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별관의 문제를 베를린장벽의 모델을

기고



홍석태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무안국제공항의 면세점 사업을 오는 6월에 중단기로 결정했다. 관광공사 측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국 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우선 여름철 공항 성수기를 감안, 9월까지 면세점 연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여 우선 급한 불은 꺼 놓은 상황이다.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국제선 노선 확충, 항공사 재정 지원, 착륙료 및 주차료 면제, CIQ 운영 등으로 무안공항이 개항 초기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다만 최근들어 신종플루 확산, 국제경기 철회 등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면세점 철수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남에는 2010 F1국제 자동차경주대회, 2012 여수 세계박람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무안 한·중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대 중국 수요가 급증할 요인이 있음에도 개항 초기의 문제

점만을 보고 면세점을 철수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2012년까지 면세점 존치를 건의하는 한편, 면세점 운영의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면세점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지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앞서

무안국제공항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광주·전남의 명실상부한 관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기대한다.

《전남도 건설방재국장》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성’의식’

올바른 성가치관·교육 필요

최근에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 의식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발표 했다. 청소년 응답자의 35%가 이상 친구와 포옹과 같은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20%가 키스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4%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남·고교생 4%가량이 상대방이 거부하는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한다. 거기다가 일부 남자 중고생의 30%가 ‘여자는 걸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은 척하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강압적이기를 바란다’고 생각한다는 점이였다.

혼전순결과 관련해서도 남녀 중고생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걸로야 좋게 표현해서 ‘개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바로 말하면 청소년들의 성 의식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해이해졌다고 생각된다.

요즘은 신종 성매매인 ‘키스알바’를 버젓이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고 한다. 키스알바는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중고생들 사이에 상당히 많은 학생이 경험이 있거나 한번쯤 해봐도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그게 결국엔 자신이 원치 않았던 탈선의 문을 두드리고 결국엔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꼴이라는걸 알아야 한다.

▲오수영·광주시 북구임동

무안공항 활성화 대안은 있다

도에서는 면세점의 확장을 건의했지만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였다.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운영비를 들여 면세점 운영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무안공항 이용객 수는 국제선 12만 명, 국내선 3만 명 등 15만 명이고, 올 들어서도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또 현실적인 대안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첫째,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중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일부

無等鼓

소나무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나무다. 5천 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며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다. 줄기나 뿌리, 잎, 꽃가루, 송진 등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다.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차와 술의 원료로 쓰였다. 어려운 시절에는 구황식물이 돼주었고, 땀나뭇나 약재로도 사용됐다. 마을의 수호신인 동신목(洞神木)이나 산신당의 신목(神木)도 소나무가 많았다.

척박한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며, 늘 푸르게 제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지조와 절제의 상징으로 꼽혔다. 림박하던 시절에는 노래가 되어 국민들의 억눌린 가슴을 다독여왔다. ‘상록수’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가 대표적이다.

산림청의 국민의식조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에 소나무가 으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유럽의 ‘오크(oak) 문화’, 지중해의 ‘올리브(olive) 문화’에 견주어 한국의 문화를 ‘소나무 문화’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 소나무가 이 땅에서 점점 사라

지고 있다. 생활상이 변하고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활엽수가 넓은 자리를 차지하는 숲의 천이(遷移)는 물론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으로 해마다 많은 면적의 소나무 숲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근엔 가뭄과 이상 고온까지 가세해 수호신인 동신목(洞神木)이나 산신당의 신목(神木)도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 조사에서는 도내 312ha에서 2만8천여 그루가 말라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속도가 심심치 않다.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면적은 2배, 죽은 소나무는 4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100만 그루 이상 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 상태라면 소나무가 50년 뒤에는 남한에서, 100년 후엔 한반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만간 보호소로나 연명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소나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지)	
대표전화 2200-551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 집 부 2200-672	문 화 홍 보 국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경 처 부 2200-634	어 려 문 제 부 2200-679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